

보험사 고령자 대출잔액 33%… 연체율 높아 건전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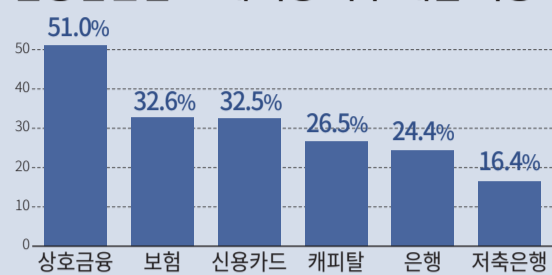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비중 증가
은퇴 후 생활비·창업비 마련 목적
자영업 대출 40%, 생계형 2.71%
연평균 연체율 0.5%로 가장 높아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권 가계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발표 '국내 보험사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및 과제' 보

금융업권별 60세 이상 차주 대출 비중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권 60대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32.6%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51%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도 50대 34.1%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 10년(2013~2023년) 보험업권의 연평균 대출증가율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7.5%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보험업권 가계대출 비중 증

가의 원인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 마련 등이 꼽힌다. 은퇴를 앞두고거나 은퇴한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퇴직 후 창업 증가,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필요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차입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보험업권 대출에서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40.4%, 생계형 대출 비중은 2.71%로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2023년 12월 말 기준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비중은 6.73%로 타 연령 대비 가장 높고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1.9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고령층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령층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10년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업권 연평균 연체율은 0.5%로 가장 높았고 50대 0.42%, 40대 0.4%, 40세 미만 0.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금리 속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했고 고연령 차주의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의 연체위험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로 대출의 늪에 빠진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향후 고금리 지속 가능성, 고령층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대출 확대 및 부실 위험 억제를 위해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고령층의 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 본격시행… 보험금 누수 막을까

비급여 이용량 따라 할인·할증
업계 "점유율 미미… 효과 미지수"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 만큼 실손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3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차등제 실시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우선 4세대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

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고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150만원 ▲150~300만원 ▲300만원 이상 경우 각각 비급여 보험료가 100%, 200%, 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며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고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체 실손 보험금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 이후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1년 62%, 2022년 88.8%, 2023년 115.5%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손해율은 134%로 지난해 동기 118.4% 대비 15.6%포인트(p) 급등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

적인 반응이다. 4세대 실손보험 점유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4세대 실손보험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10.5%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해 보험료가 할증될 대상은 4세대 가입자 중 1.3%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른데 상품 측면의 제도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품과 함께 비급여 관리 통제를 수반해 두가지 측면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DL이앤씨 회사채 수요예측서

8050억 접수 '흥행'

재무안정적·다양한 사업 강점 주요

DL이앤씨가 회사채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총 8050억원 규모의 주문을 접수했다.

당초 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 규모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각각 5200억원, 2850억원 등 계획 대비 약 8배의 물량이 들어온 것.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전반의 업황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 등으로 건설채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DL이앤씨의 회사채 수요예측이 흥행한 것은 이례적이라 평가다.

DL이앤씨는 최근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등급을 받아 2019년 이후 6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의 탁월한 재무안정성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안정적 사업기반 등의 강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장에서 AA급의 우량 회사채가 희소한 만큼 DL이앤씨의 수요예측이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이래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현금 1조2506억원을 보유해 지난해 말 대비 1896억원 증가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조4320억원을 보유 중이다.

차입금 의존도는 13.5%에 불과하며, 부채비율 역시 102.3%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건설업 재무 위기의 단초가 된 PF보증 규모면에서도 DL이앤씨는 2024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38.6%에 불과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마을금고, 하나카드와 손잡고 카드사업 강화

체크카드 고객에 고금리 상품 제공
장기적으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

새마을금고가 카드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업 카드사와 공동마케팅 및 상품 개발 협업을 체결한 데 이어 체크카드 개설 고객에게 고금리 적금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위기를 겪은 만큼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3월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새마을금고와 하나카드가 'MG플러스 신용카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입찰을 부치고 하나카드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오는 10월 첫 번째 협업상품인 'MG+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남은 3개월간 카드 회원 모집을 위해 영업전 전산을 개발하며 공동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를 중심으로 체크카드 영업을 강화한 바 있다.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고금리 정기적금에 가입시켜줬다. 'MGNEW정기적금'의 우대조건



(왼쪽부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올유닛 체크카드, 다나는 체크카드 플레이트 이미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은 ▲신규고객 ▲공과금자동 이체실적 달성 ▲조합원 가입 등으로 구성했다. 지점별로 금리를 차등 책정했지만 저축은행, 신탁 등 같은 2금융권과 비교하면 최대 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임오새마을금고 본점'이다. 연 8% 금리를 지급한다. 이어 고흥새마을금고 대서지점과 대성새마을금고본점이 각각 연 7%, 연 5.50% 금리를 적용했다. 서울에서 금리를 가장 높게 책정한 곳은 성북구에 있

는 '새중앙새마을금고 제1지점(연 4.60%)'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과 조합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상품문의가 꾸준히 등장했다"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혜택 측면에서도 전업 카드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카드부문 사업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 서비스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시중은행 수준의 총자산을 가진 금융회사인 만큼 체급에 걸맞

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총 자산은 287조원이다. 같은 상호금융회사인 신탁중앙회보다 138조원 더 많다. 금융권에서는 체급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과 견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직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 형태로만 신용카드 출사가 가능하다. 전업 카드사가 라이선스가 없는 만큼 자체 신용카드는 설계할 수 없다. 단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연체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만큼 경기회복과 시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낮다.

장기적으로 비이자수익 확대도 노려볼 수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증가하면서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 위기를 겪었던 만큼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수료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서비스 제고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그간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대리로 판매했지만 PLCC로 자체 상품을 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